

“타율 1푼 더 올리기” 감독과의 약속 지키겠다”

KIA 포수 김태군 시즌 각오 다져

“집중해서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퓨처스 후배들에 ‘커피차’ 응원
첫 승 크로우 동료들과 피자 파티

“다 같이 고생한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지난 23일 KBO 대장정이 시작됐고, 26일에는 퓨처스리그가 새 시즌의 막을 올렸다.

KIA 타이거즈는 26일 합평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퓨처스 개막전을 치렀다. 새로운 시즌을 연 챔피언스필드에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다.

KIA 포수 김태군이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를 위해 ‘커피차’를 보냈다.

김태군은 “다 같이 고생했고 고생하니까 보냈다. 다들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보냈다. (전 소속팀) 삼성과의 경기이기도 해서 신경을 썼다”며 “KIA에 있는 후배들도 그렇고 삼성 후배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다.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다. 다들 잘 하면 좋겠다”고 커피차를 보낸 이유를 밝혔다.

김태군은 지난 시즌 중반 류지혁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삼성에서 KIA로 건너왔다.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다년계약에도 성공하면서 KIA에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열었다.

KIA와의 특별한 인연은 NC 시절이었던 2014년에도 있다.

김태군은 지난 23일 개막전에서 이범호 감독, 양현종과 케이크 커팅식 행사를 위해 나란히 자리를 했다.

이날 KIA는 챔피언스필드 개장 10주년을 기념



지난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10주년 케이크 커팅식에서 (왼쪽부터)김태군 포수, 이범호 감독, 양현종 투수가 커팅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한 행사의 일환으로 챔피언스필드 1호 기록자들로 케이크 커팅식을 했다.

이범호 감독은 챔피언스필드 1호 만루홈런, 양현종은 1호 삼진 주인공. 김태군은 챔피언스필드에서 첫 타점을 기록한 선수다.

김태군은 “1호 타점 주인공이라는 걸 몰랐다. 캠프에서 귀국하고 나서 이런 행사가 준비된다고 들어서 알게 됐다. 1차전은 1-0으로 기억이 난다. 그때 현종이 형이 8이닝 무실점을 했고, 이재학이 7이닝 1실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점이 수비 실수로 인해서 비자책으로 됐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2014년 4월 1일 KIA는 NC를 상대로 챔피언스필드 첫 경기를 치렀다. 이날 경기는 김태군의 기억대로 1-0, KIA의 승리로 끝났다. 양현종이 8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고, 외국인 투수 어센시오가 세이브를 올렸다.

NC에서는 이재학이 선발로 나왔고, 역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지만 두 번째 투수로 나왔던 손민환이 실책을 기록하면서 1실점, 1자책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실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1점, 그래서 챔피언스필드 개장 1호 타점은 2차전에서 나왔다.

김태군은 “2차전에서는 안타 친 게 기억난다. 그때 3루수가 지금 감독님이시다”고 웃었다.

김태군은 0-0으로 맞선 2회초 임준섭을 상대로 적시타를 날리면서 2루타로 출루했던 나성범을 홈으로 불러들여 타점을 만들었다.

챔피언스필드 첫 타점과 첫 득점 주인공은 지난해 KIA에서 재회를 했고, 적으로 만났던 3루수 이



KIA 포수 김태군이 26일 합평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삼성 퓨처스 개막전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커피차를 선물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범호는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김태군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 혼자 힘으로는 못 왔다.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분이 내가 1호 타점을 했다는 것을 생각 못 하셨을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더 목적해진 책임감으로 시작한 시즌, 김태군은 이범호 감독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집중해서 뛰겠다는 각오다.

그는 “지난 시즌 끝나고 감독님하고 약속한 게 있다. 작년보다 타율 1푼 더 올리는 것으로 약속했다. 전반기 끝나고 약속을 지켰을 때 선물이 있는지 여쭙보겠다. 그때는 코치님이셨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감독님 수일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 (웃음)”며 “조금 더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감독님

과의 약속을 지켜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개막전 6연패를 끊으면 출발은 좋았지만 야구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

김태군은 “한 게임이라고 하지만 첫 단추는 잘 끼운 것 같다”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시즌을 하다 보면 50-60패는 하게 돼있다. 그때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IA와 롯데의 시즌 첫 대결이 펼쳐진 챔피언스필드에서는 ‘피자 잔치’가 벌어졌다.

김태군과 함께 개막전에서 호흡을 맞춰 승리투수가 된 윌 클로우가 공-수에서 승리를 지원한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피자 40판을 돌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LPGA 시즌 첫 승 이번엔 나올까

투어 포드 챔피언십 28일 개막...김효주·김세영·이소미 등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총상금 225만 달러)이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길버트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창설된 이 대회는 응용 소재 화학기업 KCC가 공식 후원을 맡아 대회 공식 명칭이 ‘포드 챔피언십 프리젠티드 바이 KCC’다.

지난주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가 호스트를 맡은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 주에는 한국 기업이 공식 후원을 맡은 대회가 열리게 됐다.

올해 앞서 열린 6차례 대회에서 나오지 않은 한국 선수의 시즌 첫 승이 이번 대회에서 나올지가 역시 관전 포인트다.

올해 6개 대회에서는 넬리 코다(미국)가 혼자 2승을 거뒀고, 교포 선수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한 바 있다.

시즌 개막 후 6개 대회에서 한국 선수 우승이 없었던 최근 사례는 2014년 이후 올해가 10년 만이다.

2014년에는 개막 후 14번째 대회인 그해 6월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박인비가 한국 선수 첫 승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는 김효주와 유해란, 양희영, 김세영, 전인지 등이 나오며 올해 LPGA 투어 무대에 데뷔한 이소미와 성유진, 임진희 등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세리 챔피언십에서 공동 5위에 오른 신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국 선수로는 신지에 다음으로 좋은 성적인 공동 10위에 오른 신지은과 이달 초 중국에서 열린 블루베이 LPGA에서 공동 9위를 기록한 최최정 등도 이번 대회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태세다.

지난주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코다가 시즌 3승과 2주 연속 타이틀에 도전하고, 리디아 고와 베일리 타디(미국), 해나 그린(호주)은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대회가 열리는 코스는 세빌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6734야드)으로 2000년 개장한 곳이다.

사막에 둘러싸인 코스로 아일랜드 그린에 있는 17번 홀이 경기 막판 여러 번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초등 야구, 엘리트·클럽 맞붙는다

11월 이승엽야구장학재단 왕중왕전 개최

초등야구 엘리트 선수들과 클럽 선수들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이승엽야구장학재단(이사장 이승엽·이하 재단)은 26일 “11월 대구 강변학성야구장에서 한국 야구 풀뿌리 발전을 위해 초등학생 야구 왕중왕전인 ‘이승엽 파운데이션 인비테이션얼’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엘리트 선수들과 클럽 야구 선수들이 한 무대에서 우승을 다툰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 초등 야구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회장 이종훈)에 등록된 12세 이하부 선수들과 KBSA 산하 전국 규모 연맹체인 한국리틀야구연맹(회장 유승안) 소속 클럽 선수로 나뉘어 있다.

사용하는 야구 용품 규격과 경기 규칙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단체별 교류전 및 공식대회가 어려웠다.

초등 야구 선수들의 화합과 건강한 경쟁을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한 재단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한국리틀야구연맹 대표자로 구성된 대회 조직위원회를 통해 세부 규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승엽 파운데이션 인비테이션얼’은 올 시즌 열리는 공식 대회 결과에 따라 상위 4개팀씩 총 8개팀을 초청해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공정한 참가 팀 선발을 위해 ‘이승엽 파운데이션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재단은 초청된 참가팀들에 대회 참가 지원금과 야구 용품을 시상한다.

우승팀에는 트로피와 10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준우승팀은 트로피와 5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 3위팀은 트로피와 3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받는다. 4위 팀에도 20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이 수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시우, 플레이어스 여운 이어갈까

PGA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 오픈 28일 개막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 오픈(총상금 910만 달러)이 28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다.

2022년까지 가을에 열렸던 이 대회는 2018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봄 대회로 돌아왔다. 작년에는 PGA 투어가 단년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열리지 않았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시우(사진), 이경훈, 김성현, 강성훈이 출전한다.

김시우와 이경훈은 PGA닷컴이 선정한 이 대회 파워 랭킹 6위, 11위에 올랐다.

김시우는 지난 18일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를 몰아쳐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올 시즌 첫 톱10이다.

김시우는 2024시즌 그린 적중률 12위(71.60%)를 달성 정도로 정교한 샷 감각을 뽐내고 있다. 다만 퍼트(이득 타수 130위)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경훈은 이날 5일 코그니전트 클래식(공동 4위)에서 5개월 만의 10위권 진입에 성공했고 25일 발스파 챔피언십을 공동 9위로 마무리했다.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3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을 넘는다.

셰플러는 지난 11일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션얼



에서 시즌 첫 우승을 따냈고 일주일 뒤 플레이어스 2연패를 달성했다.

셰플러는 올해 출전한 7개 대회에서 우승 2차례를 포함해 톱 10에 6차례 진입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나머지 한 번도 공동 17위였다.

이 대회와 궁합도 좋다. 셰플러는 2021년 대회에서 8언더파 62타로 코스 레코드를 세웠다.

셰플러에 밀려 2주 연속 준우승에 그쳤던 원팀 클라크(미국)는 설욕에 나선다.

클라크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션얼에서 5타 차 2위를 차지했고 플레이어스에선 1, 2라운드 선두를 달리다가 끝내 역전패했다.

셰플러와 클라크는 PGA닷컴 파워 랭킹에서도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가 열리는 메모리얼 파크 골프 코스(파 70)는 파3 홀이 5개나 되고 파5 홀이 3개에 불과해 타수를 줄이기 쉽지 않은 곳이다.

/연합뉴스

손가락 부상 탓

SSG 추신수 1군 엔트리 제외

올 시즌이 끝나고 은퇴하는 ‘2024년 KBO리그 최고령 선수’ 추신수(41·SSG 랜더스)가 오른손 약지 부상 탓에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SSG는 26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 프로야구 홈 경기를 앞두고 추신수를 1군 엔트리에서 뺐다.

추신수는 KBO리그가 개막한 2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5회말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한 뒤 2루를 훔쳤다.

2루에서도 추신수가 활발하게 움직이자, 롯데 선발 에런 윌커슨이 2루에 견제구를 던졌다. 공은 슬라이딩하며 귀루하던 추신수의 오른손을 때렸다.

추신수는 오른손 중지가 붓고, 약지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다.

결국 이승용 SSG 감독은 추신수에게 휴식을 지시했다.

추신수는 1군과 동행하며 복귀 시점을 잡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목포대 ‘춘계전국대학검도’ 우승

국립목포대(총장 송하철) 검도부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무안 종합스포츠타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6회 춘계전국대학검도연맹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대학 22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목포대는 단체전 예선에서 위덕대를 상대로 4-2로 승리한 뒤, 8강에서 대구대를 만나 3-2로 이겼다.

조선대와 만난 준결승에서는 목포대가 3-2로

이기며 결승전에 진출했고 이후 용인대를 3-1로 꺾고 1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도 단체전 1위에 올랐던 목포대 검도부는 이번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

개인전에서는 목포대 체육학과 이승현(3년)이 준우승을 기록했고, 나용빈(2년)은 3위에 올랐다.

/김진아 기자 jiggs@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